

Seven signs – sermon 1: Sermon Notes

Title: “Sign sign everywhere a sign”

Scripture: John 2:11, 3:11, 6:14

Date preached: June 12th 2022

Scripture: John 2:11, 3:11, 6:14

This beginning of signs Jesus did in Cana of Galilee, and manifest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John 2:11)

Most assuredly, I say to you, We speak what We know and testify what We have seen, and you do not receive Our witness. (John 3:11)

Then those men, when they had seen the sign that Jesus did, said, “This is truly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John 6:11)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John 2:11)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John 3:11)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다. (John 6:11)

Introduction

In 1970 the little known Canadian rock group “Five Man electrical band” wrote a song called “Signs.” The inspiration for the song came about when the band's singer Les Emmerson was driving in his car through California. As he drove along he became frustrated that signs and billboards were constantly blocking his view of the natural world. He began to wonder who gave people permission to put up all these ugly signs everywhere. The chorus of the song captures his frustration. It has the lyrics,

“Sign, sign everywhere a sign. Blockin' out the scenery, breakin' my mind.”

Today we live in a world in which we are surrounded by signs. There are so many that I think we have become numbed to their presence. In shops, along the road, in public buildings, schools, factories and bus stops. It really is the case of, sign, sign everywhere a sign.

The song “signs” complains that there are too many signs and that many are unnecessary. They distract your attention from what really is important. In this case the beautiful Californian scenery. Signs can represent an authoritarian trend in the world. The more a government wants to control people the more signs are needed. So signs can be a symptom of a world in which normal people are constantly being told what to do and where to go. I have some sympathy with that view. I don't want to be continually told what to do, think and say. If I'm walking in a park and see a sign saying “don't walk on the grass” can you guess where I really want to walk.

But we must also acknowledge that signs at times can be very useful. They do convey important information. They tell us things that can help or protect us. At times, they can be even be life-saving.

In some places around the world you might see a sign like this on the beach. The sign warns people that a shark has been sighted swimming close to the beach. If you are at a beach displaying this warning sign what would you do? Clearly you would stay away from the water.

The value or importance of a sign is of course not the sign itself. The sign itself is just a piece of metal on a stick. Its importance lies in what it directs our attention towards. In this case we are not thinking about a yellow diamond with a shark logo on it. Instead, we should be seriously consider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swimming. Our thought process may go something like this; It's a hot day, I would enjoy a cool swim. However sharks have sharp pointy teeth. Perhaps it would be best not to go in the water today. So the sign acts to point us towards an important truth that we may be unaware of. I want you to keep this thought in mind as we begin this sermon series.

In today's sermon I want to do three things. Firstly I want to give a very brief overview of John's gospel. Secondly I want to talk about signs as a New Testament phenomenon. Thirdly and finally I want to talk about John's use of signs.

1970 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캐나다 록 그룹 "Five Man electric band"는 "Signs"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영감은 밴드의 가수 Les Emmerson 이 자신의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를 지나갈 때 나왔습니다. 운전하면서 그는 표지판과 광고판이 자연 세계에 대한 그의 시야를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그는 누가 사람들에게 이 모든 추악한 표지판을 사방에 붙이도록 허락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의 후렴구는 그의 좌절을 포착합니다. 가사가 있는데, "사인, 모든 곳에 사인을 하십시오. 풍경을 가로막고, 마음이 무너져요." 오늘날 우리는 표지판으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들의 존재에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상점에서, 도로를 따라, 공공 건물, 학교, 공장 및 버스 정류장에서. 그것은 정말로, 사인, 사인의 경우입니다. 사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징조'라는 곡은 징조가 너무 많고 불필요하다고 불평한다. 그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에서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합니다. 이 경우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풍경. 표지판은 세계의 권위주의적 경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하기를 원할수록 더 많은 신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징후는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지시받는 세상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견해에 어느 정도 동감한다. 나는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풀 위를 걷지 마십시오"라는 표지판이 보이면 내가 정말로 걷고 싶은 곳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때때로 징조가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돕거나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해변에서 이와 같은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상어가 해변 근처에서 수영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경고 표시가 있는 해변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물에서 멀리 떨어져있을 것입니다. 기호의 가치나 중요성은 물론 기호 자체가 아닙니다. 표지판 자체는 막대기에 있는 금속 조각일 뿐입니다. 그 중요성은 그것이 우리의 주의를 무엇으로 향하게 하는지에 있습니다. 이 경우 상어 로고가 있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영과 관련된 위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이 더워 시원한 물놀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상어는 날카로운 뿔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물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호는 우리가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진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할 때 이 생각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저는 세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신약의 현

상으로서의 표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요한의 기호 사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n overview of John's gospel

God in His grace has given us four accounts of His son, our saviour the Lord Jesus Christ. The first thre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share many similarities. As we read them we cannot help but notice that they give similar accounts. They frequently tell the same stories using similar language. In essence they see things from the same perspective or vantage point. This is why we refer to them as the synoptic gospels. Synoptic literally means "together sight" or to put it more clearly to "see together with a common view."

There are different ways that we can talk about or recount someone's life. The most obvious, and perhaps easiest to do is to describe a person's actions or deeds. For example imagine if I asked you to tell me about your grandfather. What would you say? You would probably tell me about the job he did, the family he had, or perhaps something unusual or memorable that he did. I recently read a biography on Admiral Yi sun Shin. It was arranged as we might expect. The author laid out in chronological order what Yi Sun Shin did or said at various times in his life. This is similar to how the synoptic writers approached their subject; the Lord Jesus Christ. They were most interested in recording what Jesus did and said.

But John's gospel is different. Although John does tell us what Jesus said and did this is not his primary focus. John is more concerned with showing us the inner life of our Lord. He wants to emphasize the identity of Christ. In essence, John wants to show, or prove to us who Jesus was.

Much of what John includes is unique to his gospel. In fact around 94% of the material in John can only be found in this gospel. For example John is the only one to mention the seven "I am" statements of Jesus. Also of great importance to our particular sermon series John selects seven miracles or signs. Of these five only appear in his gospel. I will come back to talk more on these later. He is the only writer to mention Jesus' conversation with Nicodemus. The only writer to speak of Jesus's ministry in Samaria. And perhaps most surprising of all the only one to talk about the resurrection of Lazarus. Generally speaking John includes more stories about individuals. He also has a particular focus on one on one conversations. John also omits things that the synoptic gospels include. For example John has none of Jesus' parables. There is no account of the transfiguration and no mention about the institution of the Lord's supper.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우리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처음 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는 많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이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동일한 관점이나 유리한 지점에서 사물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공관은 문자 그대로 "함께 보는 것"을 의미하거나 더 명확하게 말하면 "공동의 견해로 함께 본다"입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아마도 가장 쉬운 것은 사람의 행동이나 행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할아버지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아마도 그가 한 직업, 그가 가진 가족, 또는 그가 한 일에 대해 특이하거나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최근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읽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배열되었습니다. 저자는 이순신이 일생에 걸쳐 여러 차례 행한 말과 행동을 연대순으로 나열했다. 이것은 공관 작가들이 주제에 접근한 방식과 유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기

록하는 데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비록 요한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만 이것이 그의 주요 초점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 주님의 내적 삶을 보여주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요한은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거나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포함하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그의 복음서에만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자료의 약 94%는 이 복음서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은 예수의 일곱 “나는 이다”라는 진술을 언급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의 특정 설교 시리즈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한은 일곱 가지 기적이나 표적을 선택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 그의 복음서에만 나타납니다. 나는 나중에 이것들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그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언급한 유일한 작가입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말한 유일한 작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 유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John은 개인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포함합니다. 그는 또한 일대일 대화에 특히 중점을 둡니다. 요한은 또한 공관복음에 포함된 것들을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은 예수님의 비유가 없습니다. 변형에 대한 기록이 없고 주의 만찬 제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Let us then spend a little time talking about the gospel of John. When it comes to authorship the writer does not directly identify himself in the text. We know him only 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s” (John 13:23). Church tradition has always held that this was the Apostle John, or John the son of Zebedee. The bible tells us that John was the brother of James. Both John and James were fishermen from Galilee. They seem to have possessed a fiery and at times aggressive temperament. This later earned them the nickname “Boanerges” translated as “sons of thunder” from the Lord. They were two of the first disciples Jesus called and became part of his closest inner circle. This means that John was an eyewitness to all the events he recorded in his gospel. He saw first hand how our Lord responded to situations and dealt with people. That placed him in a unique position to later write with amazing clarity and insight. Church tradition says that John was the only one of the twelve not to die a martyr's death. He lived until old age by which time he had mellowed considerably. He would, along with his gospel also write 1,2,3 John and Revelation.

When it comes to the dating of John's gospel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It depends on which commentary or study guide you consult. Scholars have argued for dates as early as 45 AD to as late as 100 AD. Some contemporary liberal scholars even want to date the gospel to the 2nd century. I hold a conservative position and think that the gospel of John was the last gospel to be written probably between 85-95 AD. As to where it is written the most likely place is Ephesus.

Let us turn to think next about John's target audience. We know that all of the gospel writers had a particular audience in mind. We know that Mark and Luke were writing for a mostly Gentile audience and Matthew for believers from a Jewish background. So who was John writing for? John it seems was writing for non-Jewish believers. Gentile Christians who did not have a background in Judaism. He wanted to strengthen their faith that Jesus really was the Messiah. He didn't want them to lose confidence, particularly when they faced persecution.

John was also writing for unbelievers, or those who were seeking answers. Perhaps these readers had heard something about this amazing man Jesus Christ. Maybe they wondered who He was, and what He represented. John wanted to write to such people to convince them that this was no mere man. He was fully man but also fully God. He was the one God sent as our saviour. So John writes as a true evangelist. He writes to win lost souls to Christ. This is why still today John's gospel is frequently given out as a missionary tool. You cannot read it and not be forced to make a decision

on Christ. In nearly two thousand years it has lost none of its potency or power.

What are the major themes in John's gospel? John is without doubt the most theological of the four gospels. John reveals some of the mysteries of Jesus that the synoptics leave hidden. John wanted his readers to really recognise who Jesus was. He wanted them to view Jesus and see God. Therefore he focuses on things that emphasise this point. The seven carefully selected signs. The seven "I am statements." All of these things ask us to question who Jesus is. Who could do and say such things. When we carefully consider them only one answer presents itself. Only God Himself could do or say these things.

Let us turn now to think about signs in the New Testament.

그러면 요한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에 관해서는 작가가 텍스트에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요한복음 13:23)로만 알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은 항상 이것이 사도 요한, 즉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둘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불타고 때로는 공격적인 기질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천둥의 아들들"로 번역된 "Boanerges"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제자 중 두 사람이었고 그의 가장 가까운 내부 서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의 목격자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나중에 놀라운 명료성과 통찰력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12명 중 순교자로 죽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년이 될 때까지 살았으며 그 때까지 그는 상당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그의 복음과 함께 요한복음 1,2,3 절과 요한계시록도 기록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연대에 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논평이나 연구 가이드를 참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자들은 초기에 서기 45년에서 서기 100년까지 연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일부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은 복음의 연대를 2세기로 보고자 합니다. 나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이 아마도 주후 85-95년 사이에 기록된 마지막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곳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에베소입니다. 다음으로 John의 타겟 고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특정한 청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마가와 누가가 대부분 이방인 청중을 위해 글을 썼고 마태는 유대 배경을 가진 신자를 위해 썼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존은 누구를 위해 글을 썼습니까? 요한은 비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쓴 것 같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는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라는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특히 박해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자신감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또한 불신자들이나 답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독자들은 이 놀라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분이 누구이며 무엇을 상징하는지 궁금해 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것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정한 전도자로 기록합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요한복음이 선교의 도구로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읽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결정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 힘이나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의심할 여지 없이 네 복음서 중 가장 신학적입니다. 요한은 공관복음서에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엄선된 7개의 표지판. 일곱 "나는 진술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게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주의 깊게 고려할 때 오직 하나의 대답만이 제시됩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러한 일을 행하거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표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Signs as a New Testament phenomenon

We should begin by defining what we mean by a miracle. I like the definition given on Gotquestions;

A miracle is a divine work of God that transcends human understanding and inspires wonder, displays the greatness of God, and causes people to recognize that God is active in the world.

Today the word miracle is often used inaccurately to describe something amazing or unexpected. We talk for example about the "miracle of a baby being born." Is child birth a miraculous act? Whilst it is something wonderful, amazing and special it's not a miracle. It happens hundreds of thousands of times a day around the world.

What does the bible mean when it talks about miracles? When the bible talks about miracles or signs it is referring to events not explainable solely by natural processes. Miracles are acts that only God can perform. Most often they are acts that supersede natural laws. So a miracle is God intervening in the world and temporarily changing the natural way He designed the world to work.

Turning water into wine is a good example. Normally to make wine we need water, grapes or some other fruit and time. God however, and only God can make wine with just water instantly. It's a miracle because it can only be explained by invoking the supernatural. The laws that govern the natural world mean such a thing is normally impossible.

Why then does God choose to intervene in a miraculous way at certain times in human history? Well to answer this I ask you to think back my introduction. I spoke about signs serving to point us to something beyond themselves. God chooses at times to perform miracles to remind us of several important things. Firstly that He exists, secondly that His power it is not limited by the laws of matter or mind and finally that He cares about or has compassion for His creation.

Throughout the pages of the New Testament we see numerous miracles, signs or wonders. They are referred to in a number of ways in the New Testament. Let's look at the four most commonly used terms to describe them.

1 *Dunamis* or *dynamis* is frequently used to describe miracles. In our modern English bibles this word is translated as "mighty work," "power" or "miracle." It refers to events that are clearly caused by someone possessing superhuman power that is supernatural in its origin.

2 *Semeion* which is sometimes translated as "sign," or "miracle." It is used to validate a divine commission, to attest to a message from God or bear witness of His presence.

3 *Teras*, this word is usually translated as "wonder" in our modern bibles. It denotes events or miracles that are astonishing for humans to see.

4 *Ergon*. This word, often translated as "works." It frequently refers to the deeds of Christ.

Many of the miracles, signs or wonders we read about in the pages of the New Testament were performed by the Lord Jesus. But we also see signs or miracles performed by the Apostles or other

people in the early church. As we look at the signs or miracles we can make some general observations.

Firstly miracles are always performed with a purpose. They are never done as tricks or as something to amaze or amuse. Magicians today entertain us by making coins appear or disappear but miracles are never done for entertainment. God is not interested in trying to amaze or entertain us. We know this because Jesus refused to perform miracles simply to satisfy people's curiosity (Matt 12:38-39).

Secondly miracles are also never done in isolation. The miracle of turning water into wine was not done just so the people at the wedding had some nice wine to drink. Miracles always serve a greater purpose. They are intended to validate or prove that the person doing the miracle is working under God's authority. In Jesus' case they were done to increase the observers' faith in Him as Savior. After Christ the miracles or signs the apostles performed served as divine testimony to the revelation these people brought. The signs were the evidence or proof that these people had God's authority. Or to put it more simply, you can believe what Paul says because I (God) am allowing him to do amazing things.

Thirdly we see in scripture an increase in miracles around periods where a new era of God's revelation is beginning. This holds true for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People think that the bible is full of miracles but this is not the case. We tend to see clusters of miracles at particular times. The first major cluster of biblical miracles surrounds the exodus of the Israelites from Egypt. The next cluster of miracles involves the prophets Elijah and Elisha. We then see a cluster taking place in the life of Daniel and his friends in exile in Babylon. After this the next cluster comes with the arrival of the Lord Jesu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Let us now turn finally to look at John's use of miracles in his gospel.

우리는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Gotquestions 에 주어진 정의를 좋아합니다. 기적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입니다. 오늘날 기적이라는 단어는 놀랍거나 예상치 못한 것을 설명할 때 종종 부정확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는 기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출산은 기적적인 행위인가? 놀랍고 놀랍고 특별한 것이지만 기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도 수십만 번 발생합니다. 성경이 기적에 대해 말할 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적이거나 표적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자연적 과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부분 자연법칙을 대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세상이 작동하도록 설계하신 자연적인 방식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와인을 만들려면 물, 포도 또는 기타 과일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물로 즉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불러내야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자연계를 지배하는 법칙은 그러한 일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특정 시기에 기적으로 개입하기로 선택하셨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제 소개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에게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표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때때로 기적을 행하기로 선택하십니다. 첫째로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 둘째로 그분의 능력이 물질이나 마음의 법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거나 연민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는 수많은 기적, 표적 또는 기사를 봅니다. 그들은 신약에서 여러 가지로 언급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 가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1 **Dunamis** 또는 **dynamis** 는 기적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현대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위대한 일", "능력" 또는 "기적"으로 번역됩니다.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 명백히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2 때때로 "징조" 또는 "기적"으로 번역되는 **Semeion**. 이것은 신의 사명을 확인하거나, 신의 메시지를 증언하거나, 그의 임재를 증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3 **Teras**,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현대 성경에서 "경이로움"으로 번역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놀라운 일이나 기적을 나타냅니다. 4 **에르콘**. 이 단어는 종종 "작품"으로 번역됩니다. 그것은 종종 그리스도의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읽는 많은 기적, 표적 또는 기사는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행한 표적이나 기적을 봅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일반적인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적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속임수나 놀래키거나 즐겁게 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마술사는 동전을 사라지게 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기적은 오락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적을 행하기를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압니다(마 12:38-39). 둘째, 기적도 결코 단독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단지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항상 더 큰 목적에 기여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그들은 관찰자들이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나 표적은 이 사람들이 가져온 계시에 대한 신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표적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 또는 증거였습니다. 또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나(하나님)가 놀라운 일을 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에 기적이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기적이 가득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기에 기적의 무리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적 기적의 첫 번째 주요 클러스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음 기적의 무리에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바벨론으로 유배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삶에서 클러스터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다음 무리는 주 예수님의 오심과 교회의 설립과 함께 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복음서에서 사용한 기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John's use of signs

How many miracles did Jesus perform during His earthly ministry? I have seen lists claiming a figure of between 37 and 42. The truth however is that we do not have an accurate figure. If you have some time you could go through the gospels and make a record. However you still might not come up with a definitive answer. The difficulty you would have is that the Gospel writers often record the same miracles but with slightly different details. So its hard sometimes to know if a particular miracle recorded is one miracle recorded from different angles, or if two separate miracles are being recorded. Whilst this may be frustrating we should remember that the gospel writers did not set out to carefully record every occurrence of the miraculous. In fact John ends his gospel by telling us;

And there are also many other things that Jesus did, which if they were written one by one, I suppose that even the world itself could not contain the books that would be written. Amen. (John 21:25)

This is an admission that all of the inspired gospel writers selected and omitted details about the life of our Lord and saviour in their accounts. They were not given the task of writing a comprehensive biography of Jesus. After all, we know almost nothing about the first thirty years of His life. If you bought a biography today that only started when someone was thirty years old you might feel cheated.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gospels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writers all had a particular perspective. They were concerned with the really important work of salvation that Christ was sent to perform.

In John's case we spoke before about his desire to present to his readers a particular perspective of Jesus. He wanted his readers to be under no illusion. He wanted them to understand exactly who Jesus was. He was the incarnate son of God who had come to reveal the father and to bring eternal life to all who believe in Him.

In order to do this John built his gospel around seven signs that provided evidence that Jesus was indeed God. The seven signs are as follows, turning water into wine, healing an official's son, healing a man at Bethesda, feeding the 5000, walking on water, restoring sight to a blind man and raising Lazarus.

When we step back and look at the miracles as a whole they tell us many things about God. Obviously they tell us that God is sovereign over all aspects of creation. They tell us that He is the ultimate power that controls all things. But they also reveal to us something of God's true character. They demonstrate to us that He truly loves and cares for His creation. All of these miracles are revelations of God's love manifesting itself in gracious behaviour toward people in their various needs. For example, the miracle of changing water into wine shows God's concern for marital joy. Not to mention His desire for us to experience joy and happiness in our lives. The feeding of the 5,000 shows God's love and compassion in providing for our material needs. The raising of Lazarus shows us God's grace in providing new life.

So in conclusion John tells us why he included these signs.

but these (*seven signs*)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John 20:31)

He wants us to be like the men who exclaimed after witnessing the feeding of the 5000;

“This is truly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John 6:11)

So as we begin this examination of the seven signs let us remember where they direct us. The signs point us to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he one God sent to save us. To Him *be* the glory and the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예수님은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가? 나는 37에서 42 사이의 숫자를 요구하는 목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면 복음서를 살펴보고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복음서 저자들이 종종 같은 기적을 기록하지만 세부 사항은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록된 특정 기적이 다른 각도에서 기록된 하나의 기적인지, 아니면 두 개의 개별 기적이 기록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복음서 필자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복음을 끝맺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밖에도 많으니 만일 하나하나 기록한다면 그 기록된 책들을 세상이라도 담을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아멘. (요한복음 21:25)

이것은 영감받은 복음서 저자 모두가 기록에서 우리 주님과 구주의 생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선택하고 생략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포괄적인 전기를 쓰는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생애의 처음 30 년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서른 살 때부터 시작된 전기를 오늘 구입했다면 속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관해서 우리는 저자들 모두가 특정한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수행하도록 보냄을 받은 정말 중요한 구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경우에 우리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환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아버지를 계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요한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곱 표징을 중심으로 자신의 복음을 세웠습니다. 일곱 징조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 베데스다에서 사람을 고치는 것, 5000 명을 먹이는 것, 물 위를 걷는 것, 소경을 보게 하는 것,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기적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측면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성품의 무엇인가를 계시해 줍니다. 그것들은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기적은 다양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은혜로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은 결혼의 기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분의 열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5,000 명을 먹이신 것은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은 그가 이 표적들을 포함시킨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일곱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그분은 우리가 5000 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외쳤던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6:11) 그러므로 일곱 가지 표적에 대한 이 검토를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기억하도록 합시다. 징조는 우리의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를 세세무궁토록 돌립니다. 아멘.

